

제 217 호

연중 제 2 주일

1977. 1. 16.

#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론 □



## 가나의 혼인

### 잔치와 마리아

권영균 신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 혼인잔치는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있었다. 가나는 나타나엘의 마을이었다. 복음사가가 갈릴레아의 가나라고 한 것은 티토와 시돈 부근에 있는 가나와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이 가나는 나자렛에서 북방 8k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은 성서 학자들의 말대로 잔치장과 인척 관계에 있었다고 보며 요셉은 이미 고인이 되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

유대인들에게도 포도주는 모든 기쁨과 연회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잔치는 보통으로 1주일 계속 되었다고 본다면 그때 사용되는 포도주는 상당량이 되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포도주의 비축은 상당량이 아니면 잔치 도중에 동나는 예가 많았다고 한다. 만약 포도주가 동이나면 어디서 갑작스럽게 구할 수도 없고 주인으로서는 그이상 더 큰 창피는 없었다. 대개 여자들은 어떤 종류의 땅개(狼狽)에 민감해서 즉시 알아 낸다. 마리아는 알아 냈다.

친절하고 인정많은 마리아는 이 기쁨 중에 신랑 신부가 이 창피를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자기 소원을 필히 들어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그에게 귓속말로「이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소연 했다. 예수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뜻을 차마 거절할 수는 없어서 예수님은 어머니 소원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이것이 예수의 첫 기적이었다. 여기서 마리아가 얼마나 세심하고 인정있고 동정심이 많은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신혼 부부를 기쁘게 해주고 잔치장의 창피를 모면해 주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흔히 마리아를 전능하신 전달자라 한다. 마리아가 전달해서 들어 주시지 않는 예가 별로 없었다고 해서 하는 말이다.

마리아는 나느베길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의 희망이시며 최후의 영광의 모델로서 이 세계가 끝나는날까지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들 예수께 전달해 주신다. 조세기부터 마리아께 대한 존경과 사랑, 마리아를 모범으로 받들고 마리아께 기도를 청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로서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크신 일을 하셨으므로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사신후퇴신 마리아는 오랜 옛적부터 하느님의 모친이라는 칭호로 존경을 받으시고 신자들은 은갖 위급과 아픔 중에 그의 밑으로 들어가 도움을 청하여 왔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때 곤란을 당할때 은혜가 필요할때 마리아께 진실으로 은혜를 청하자. 예수님은 틀림없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와 같이 마리아의 전구를 들어주시 것이다.

(군산 순율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바 담 풍

「풍(風)」 「바담(바람)풍」이라고 읽는다.  
「바담풍」

「아니, 바담풍이 아니고 바람(바람)풍」  
「바담풍...」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가르침이요, 배움이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 보아도 <바람풍>이라고 발음 할 수 없는 신체적인 결함은 어찌 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바담풍이라고 가르치며 바람풍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참으로 슬픈일이 아닐 수 없다.

며칠 전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고속버스를 비롯하여 시내버스까지 그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우리를 놀라게 한 일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부에서 하는 철도기관이 일을 쓸선수법한 뒤에 버스업자들에게 일을 권장했어야 옳았다.

아니나다를까 버스업자들의 반발에 슬그머니 물러서고 말았다. 잘못을 알고 이를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일은 처음부터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남을 우습게 여겨 저질러지는 치사가 새해에는 없어야겠다.

남을 우습게 여김이 바로 인권 유린의 시발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하겠다.

## 숲 정 이 산책



앞으로 기대가 큼니다.



# 희망을 갖고 함께 전디어 냅시다. (요약)

— 한국 천주교 전국 일치 위원회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오랫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치에의 염원을 불태워왔고, 그에 따라 여러차례 신·구교 합동으로 기도회를 갖기도 하면서 일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성심성의껏 마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치에의 길은 더욱 멀고도 험하게만 느껴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7·4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우리 민족은 지상 최대의 염원이었던 남북통일이 바로 눈앞에 닥아온 것처럼 환호성을 올렸지만, 불과 몇달 되지 못해서 역시 남북통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리 쉬운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과 30년간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친다는것이 이렇게도 요원한 과제임에야 수백년, 수천년을 갈라져 각기 제 나름대로의 길을 걷고 있던 교회들이 일치한다는것은 얼마나 더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과업이겠습니까?

그러나 일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어렵고도 요원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맨처음에 오직 한분의 주님이신 그분께로 일치되리라는 희망속에 믿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믿음을 더욱 굳게하고 영구히 존속시키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일치운동이라는 어려운 과업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고, 제자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한17,21) 청하시던 예수님의 기도 역시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1년 2년, 혹은 10년 20년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그런것이 아닙니다. 혹시 하느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희망을 성취시켜 주실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세대가 다 지날때까지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교회일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버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옛사람들은 몇대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렸으며, 유럽의 곳곳에 서 있는 웅장한 대성전들은 유럽인들이 100년, 혹은 200년 후를 내다보면서 마련했던 건축기금의 결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때, 우리가 아직도 요원하기만한 교회일치에의 희망을 간직하고 그걸로 배진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헛수고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역사를 돌추면서 교회분열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돌기에 앞서서 수백년, 수천년 동안 굳어있던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는 작업을 중단없이 계속할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풍부히 주실 것이라고 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느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확장 건설하면서 미래에 완성될 하느님의 나라를 향하여 중단없는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천주 성신의 은총의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한 구성원인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와 희생으로서 일치운동에 적

극 참여해야 하겠읍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은 우리가 가야 할 진로를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바리사이적인 이기주의와 배타심을 버리고 관용으로써 갈라진 형제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사실 공의회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톨릭 교회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오직 가톨릭 신자만이 하느님의 간택된 백성들이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갈라진 형제들을 배척해왔읍니다. 그러나 갈라진 교회와 단체들은 비록 결합은 있겠지만 무원의 신비에 있어서 절대로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교령 3)

둘째, 공의회는 참된 일치 운동은 내적 회심없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교회 일치에 예배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는 등 외적인 행사로써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행사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내적인 회심에 의한 진정한 형제애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 개개인이나 복음의 정신(사랑의 정신)대로 깨끗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크리찬들의 일치를 촉진하는 것이며 실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령7)

셋째, 사회활동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의 협력은 일치운동을 촉진하는 훌륭한 촉진제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간 존엄성의 인식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혹은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사회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학문과 기술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혹은 현대의 온갖 사회악에 대한 가지가지 구체책을 마련하기 위해서"(교령 12) 모든 신도들의 협력은 절대로 필요하며 또한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일치에의 길을 쉽게 배울 수도 있다고 공의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치에 대한 우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단하지 않고 끊임있게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일입니다. 실망은 금물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의 생활을 끊임없이 쇠신하여 나갈때 교회일치라는 우리의 목표는 보다 가까이 닥아오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5, 5)

전자장판·믹사(OSTAR) 대아 전기 전복대리점  
약탕기(맥스웰 사이폰) 전 주 대 리 점

## 광 신 전 업 사

박 상기(안드레아)

전주시 중앙동 3가16<한일관 앞> 전화 2-4753

□각종 조명기구, 석유 연소기구, 가정용 전자기구□

□ 양지쪽 □

# 젊은이들이여!

서 갑 순(니고테모)

젊은이들이여!

은 세계가 어둡고 캄캄해도, 어지러움과 시끄러움이 겹쳐도, 우리의 사정이 더 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게되어도, 그래서 우리에게 무서운 파탄이 와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우리의 안팎으로 증오와 배신과 박해가 우리를 둘러 싸더라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이가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분노와 미움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와 저들에게 새로운 신의와 관용이 되살아나도록 사랑을 줍시다.

젊은이들이여!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실의와 절망, 증오와 복수심, 냉전과 열전의 현실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새 삶의 아침을 찾읍시다. 전쟁터에도, 감옥에도, 시장에도, 교회에도, 또한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정치인들, 학생들, 관리들, 기업인들에게도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힘찬 용기를 불러 일으킵시다.

젊은이들이여!

우리의 사랑은 때론치 않은 젊음입니다. 우리들이 힘있게 손잡고 그 젊음으로 가능성과 사랑과 용기를 다할때 가난한자들의 해방과 눌린자들이 소생할 수 있는 자유와 정의가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젊음을 불태우기 위한 젊음보다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젊음을 가꾸고 키우고 단련시키며 저들을 우리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젊음을 불태웁시다.

(가톨릭 노동 청년회 - J.O.C - 전주교구 연합회장)

□ 알림 □

그간 숲정이 편집실에서 성심껏 봉사해주던 김남숙(구베군다)양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숲정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 숲정이를 떠나가는 구베군다양을 위해 뜨거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77년 1월 16일

## 요십이 (181) 김병호

주말학교 선생 못하겠어! / 그래. 학생이 나와야 하지



부모들이 무관심이야 / 돼지같이 먹여 놀리기만 한단 말이야



분도 어머니 왜 분도 주말학교에 안보내세요?



우리 아들 이름이 돼지 인티요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찻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원준(야고버)

원아모집, 원아모집, 원아모집

자격: 만 5세 ~ 만 6세 어린이

성체유치원

주소: 전주시 중노송동  
성체수녀원 내  
전화: ②8408, ②3231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한약방

이상범(필노리아노)  
옥곡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⑤ 4544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이크

미미제과소

전화 ⑥ 658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옆>

김민주(가타리나)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전화 ③3301 (자택 ②8548)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세느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전화 ⑥ 6219

□개원안내□

★언제나 찾아주세요★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소아과> 앞  
원장 김현(아보스딩)  
전화 ③ 1665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성심·해성 교직원 연수회 (17일<월>오전 8시 30분 등록 가톨릭 센터)※장사-지학순 주교, 장화순 교장
2.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17일<월>오후 7시반, 가톨릭 센터) ※특별 설교-지학순 주교
3. 일치 주간 (18일~25일)...교회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 농민회 정기총회 2월 7~8일연기...1월 22~23일 예정이 2월 7~8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5. 전주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본당, 공소 합동): ①일시-2월 20일 오후 2시~24일까지 ②장소-가톨릭 센터 ③참가자격-본당 및 공소 교리교사 및 후보자
6. 중·고등학생 연합회 동계 목사회 85명 참가 주님의 은총 아래 무사히 마칩.
7. 대학생 연합회 주최「졸업을 위한 기도회」: ①일시-1월 17일~23일(7일간), 매일 오후 2시, ②장소-치명자산(전동성당 집합), ③참가자-모든신자 대학생 ④많은 참여 바랍니다.
8. 남성 제10차 푸르실로(가톨릭 센터): 개회식-1월 18일 오후 5시, 마나니-21일 오전 4시반, 폐회식-오후 6시 ※푸르실리스트라 제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빨랑카는 19일까지 많이 보내 주십시오.

(중요)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 용 복  
 ③3874 보좌 신부 김 진 석  
 사도 회장 이 복 석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강당에서
2. 주일학교 교리교사 희망자 연락바람: 자격-20세 이상 30세미만의 남·녀, 연락-보좌 신부 혹은 흥테레사 수녀님께.
3. 중·고등학생 미사시간 변경: 주일 오전 8시반
4. 각 Cell 의장 및 임원회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보좌신부 사무실에서
5. 미사시간 엄수 바람: (성경, 성가책, 기도서는 반드시 지참 할 것)
6. 가정미사 봉헌 권고: 신년을 맞이하여 가족의 성화와,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며 1세대당 생미사 1대씩 봉헌하시기를 권고함.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율 희  
 사도 회장 박 종 용

1. 성우회 월례회,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각 공소 순회 미사 및 아동교리 교육: ①교리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반까지, ②미사시간: 오후 4시반, ③일정안내: 18일(화)-왕정리 공소, 19일(수)-신원리 공소, 20일(목)-황운리 공소 21(금)-다리리 공소, 25일(화)-신교리공소
3. 주일 봉헌금: 43,62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학생회 정기총회: 16일 공식 미사후
2. 동계 특별 아동교리: 17일~21일까지<본당 10시~12시, 공소(전당리)오후 2시~4시> ③부모님 협조 바랍니다.
3. 교리교사 임명: 김전애(크리스티나)...수고하시겠어요.
4. 미사시간 변경: 평일<월-10시반, 화·수-오후 5시 목·금-저녁 7시>
5. 내동리 공소 방문: 18일
6. 주일 봉헌금: 54,91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교우회합: 18일-제6반<화산동, 노환구 반장 때> 19일-제7반<완산동 최 요셉 때>, 조마리아 반회장, 20일-제8반<배평2가>, 허 테레사 반회장, 21일-제9반<배평동>, 최 제마 반회장

※가정방문: 7시반 부터, 회합시작: 8시 ※교우회 회장님들은 미리 가정 방문을 하여 알려주십시오.

2.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 주일 봉헌금은 정성껏!
3. 주일 봉헌금: 34,880원

(서화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우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준

1. 성모회 (할머니 회)...10시 미사후, 어머니 회: 저녁 미사후
2. 푸르실로 교육에 참석하는 분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3. 영세 예비자 안내: 16일~30일까지 ③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4. 반사회: 18일-9반, 19일-10반, 20일-11반, 21일-12반, 22일-13반(평화동)
5. L·M 간부이동 및 회합일시: 치명자Pr-매주토요일 오후 7시반, 하늘의 문Pr-매주 일요일 오후 7시반, 죄인의 의탁Pr-매주 월요일 오후 7시반
6. 광곡리 공소 영세식: 16일(일) 오후 3시, ③본당 교우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한 철  
 보좌 신부 김 윤 석  
 사도 회장 김 유 석

1. 피미씨움(오후 1시 30분)
2. 동반장 회의(저녁 미사후)
3. 예비자 교리: 주일, 수요일, 금요일
4. 신자들의 기도: 조물주의 모친, 천사의 모후Pr
5. 제10차 남성 푸르실로: <18일~21일> ③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6. 교리교사 신임원: 고옥희, 양경배, 김윤주(구임원-임영미, 박동석, 임영애)
7. 주일 봉헌금: 117,37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1. 어머니들께서는 사제관에 모여 주세요 <언제? 1월 16일 공식 미사후>
2. 중·고등 학생회 임시 총회: 1월 16일 공식 미사후
3. 1월 9일 숲정이 대금은 김귀권 부회장님께서 부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주일 봉헌금: 22,340원